

2004년 석유화학 경기 상승 전환!

LG경제연구원 보고서 전망 ... 세계 GDP 성장률 3.5%로 수요 확대

2004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미국-이라크 전쟁과 SARS의 영향 등으로 2003년 상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.

세계적으로 더딘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증가세가 두드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-이라크 전쟁 전후의 높은 유가에 따른 원료가 부담,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수요부진 등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.

그러나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보고서는 2001-02년 2%에 그쳤던 세계 GDP 성장률은 200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3.5%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세계경제 회복은 전방산업에서의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산업의 특성상 수급의 변동에 의해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을 흡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04년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설비증가를 1.5%를 상회하는 4.3%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급개선과 이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, 그리고 석유화학기업의 마진폭 확대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기는 중동 및 중국의 급성장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의 경쟁으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토대 마련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이면서 이를 위해서 촉매개발을 통한 고기능수지 생산, 친환경적 신공정 개발 등의 <기술경쟁력 강화>와 자율적 합병을 통한 석유화학기업의 축소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의 <가격경쟁력 확보>, 그리고 각 기업의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<핵심집중 분야에 국한된 신규투자>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 <배연호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06>